

위기를 기회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해답!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자금지원실

박경빈 실장

과거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절약보다 성장을 중시하던 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 금융위기, 고유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예전의 성장지향적인 정책보다는 안정을 도모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ESCO사업은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던 기업들에게 보다 쉽게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부수적 이익도 톡톡히 얻게 되었다. ESCO사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21년째에 접어든 지금, ESCO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얼마나 변화해 왔을까. 에너지관리공단 박경빈 실장과 함께 ESC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글 / ESCO협회 서희정

ESCO산업의 활성화, 사업 확산 노력과 기술력 배양이 필수

2013년 ESCO사업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성과배분 계약방식의 ESCO사업일 경우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는 ESCO사업이 에너지사용자와의 단순 에너지절감량 배분이 아닌 ESCO가 추진하는 사업의 책임성 및 '에너지절감'이라는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ESCO사업은 '10년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성과배분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성과보증방식으로의 전환 예고 후에는 성과보증방식 ESCO사업의 비율이 전체의 71.6%까지 늘어났고 '12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방식 중 에너지사용자가 선투자하는 성과보증방식을 선호하는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과보증계약방식이 시장에 정착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ESCO민간융투자자금이 이차보전융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사업 또한 조정되었으며, 이로써 정책융투자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인 반면, 이차보전융투자자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더욱이 '12년과 달리 기업별 이차보전융투자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세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책융투자자금과 동일한 대출이자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정책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ESCO가 금융기관, 유관기관, 수출입은행 등 다각적인 연계 및 해외투자를 위해 ESCO들이 연합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 등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박경빈 실장은 올해 자금추천이 시작된 후 예상보다 더 많이, 빠르게 ESCO자금 추천신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심리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ESCO가 시장의 흐름을 신중하게 잘 살피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등 자기 역량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ESCO시장은 해외 에너지서비스 시장에 비해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방향 및 지원규모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ESCO기업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존적인 성향이 아닌 시장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2013년,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 될 것

최근 ESCO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사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ESCO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부재, 금융정보수집 및 국가 간 사업지원채널을 구축하고 금융지원 및 자금회수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ESCO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ESCO사업 예산을 '11년 1,500억원, '12년 700억원을 각각 배정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무작정 예산을 세워놓고 고심하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ESCO기업이나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등 ESCO가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자금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박 실장은 현재 해외 ESCO투자사업의 채권회수 위험 등을 경감시킬 방안의 검토가 필수적이나 특정나라로 제한한 해당국가의 법규 및 세제 등의 차이로 인한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SCO업체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정책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ESCO가 금융기관, 유관기관, 수출입은행 등 다각적인 연계 및 해외투자를 위해 ESCO들이 연합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 등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ESCO사업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시장이 될 것

ESCO사업은 자금, 장비·설비,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설계 등이 결합된 기술·금융중심의 종합서비스업으로써 기존의 산업체 중심의 사업에서 공공기관 및 일반 건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ESCO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 없이 법에 정해진 등록요건만 갖춰 ESCO사업을 수주하여 실제 공사나 사후관리·하자보수 등의 하도급 업체에 위임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등 ESCO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부 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박 실장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자금추천 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실태조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며, 기 추천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ESCO사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ESCO사업이 타 사업과 차별된 서비스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ESCO의 탄탄한 기술력 확보를 통한 에너지사용자와의 신뢰성 확보는 앞으로의 사업 확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ESCO업체는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혹은 사업수행의 문제발생 가능성 등을 필히 검토·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야

ESCO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던 1992년, 박 실장은 그 시절 자금지원실에서 실무자로서 국내에 ESCO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도입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에너지효율자금지원실로 돌아온 박경빈 실장이 보는 ESCO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전에 비해선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ESCO들의 규모도 커졌고,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도 넓어졌죠. 최근 추세를 보니 국내를 넘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ESCO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ESCO가 단순히 사업과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국익창출과 업계 역량을 함께 키우는 시각으로 접근해주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 자금지원실은 ESCO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ESCO사업안내서 및 57개 사업에 대한 투자사례집 및 시설편람 등을 발간·배포하는 등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ESCO사업 홍보 및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ESCO사업 홍보를 위한 에너지사용자,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다소비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ESCO사업 및 자금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박 실장은 새롭게 자금지원실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ESCO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업계와 공단이 서로 상생하고, ESCO끼리도 상호 공조 및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또한 시각을 넓게 본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멀리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1992년, ESCO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ESCO사업이 국내 에너지절약사업의 성과를 견인해왔듯,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의 분야에서 ESCO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사업의 일등공신이라는 자부심으로 ESCO사업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기 기대해 본다.